HYUNDAI MOTOR GROUP

보 도 자 료

수 신: 자동차 담당 기자님

배포일자: 2026년 11월 23일(월)

관련자료: 사진

꿈이 디자인이 되기까지…세계적 디자이너의 창의적 여정을 만나다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hief Creative Officer)

현대차 · 기아, 루크 동커볼케 CCO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개최

-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회 개최

… ‘Dreams that Resonate’, 어린 시절 꿈이 세계적 디자인으로 구현되는 여정 조명

…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고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전달

- 제네시스 박스 버기 콘셉트 국내 최초 전시 및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제작 과정 공개

- 디자인 개발 과정이 담긴 스케치와 모형, 영상 등 다채로운 전시물로 창작의 과정 소개

- 11/24(화)~12/11(금) 신사하우스에서 진행,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

-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영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 사람의 꿈이 현실이 되고, 다시 모두의 꿈이 되는 시간”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이자 현대자동차·기아 CCO(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CDO(Chief Design Officer,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Luc Donckerwolke) 사장의 창의적 여정을 조명하는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가 24일(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열린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이번 전시를 통해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꿈과 영감이

디자인으로 구현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온 여정을 공개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이 다시 누군가의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전시는 ▲제네시스 박스 버기 콘셉트(Genesis Box Buggy Concept) ▲GMR-001 하이퍼카(GMR-001 Hypercar) ▲하이퍼카 제작 아카이브(Hypercar Making Archive) ▲어린 시절의 방(The Childhood Room)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작업실(The Global OEM Workspace)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프로젝트(The Global OEM Design) ▲HMG 디자인 글로벌 원 팀(The HMG Design - Global One Team) ▲멈추지 않는 꿈 등 총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장 1층에 들어서면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디자인을 주도한 '제네시스 박스 버기 콘셉트'가 관람객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다. 2026년 르망 24시에서 공개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 전시되는 이 차량은 달의 표면을 연상시키는 공간에 전시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디자이너의 상상과 호기심이 실제 자동차 디자인으로 구현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 다른 전시물인 'GMR-001 하이퍼카'는 극한의 레이스 환경에서 속도와 성능의 한계에 도전하면서도 브랜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보여준다. 특히 뜨거운 태양을 연상시키는 붉은빛으로 트랙을 질주하는 차량의 궤적을 연출해 모터스포츠를 향한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뜨거운 열정을 전달한다.

1~2층 사이 중간층 라운지의 '하이퍼카 제작 아카이브'에서는 렌더링 이미지와 축소 모형 등을 전시해 'GMR-001 하이퍼카'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2층의 '어린 시절의 방'은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유년기 방을 재현한 공간이다. 유년기 사진과 세계지도, 오토바이 등을 전시해 여러 나라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특히 네 살 때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레이싱 만화 '미셸 베이앙(Michel Vaillant)'의 원본과 확대 설치물을 통해 자동차와 레이싱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 계기를 소개한다.

같은 층에 마련된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작업실'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동경이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디자인 작업 기록, 협업 자료 등을 전시해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쌓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로 성장해 온 여정을 공개한다.

이어지는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아우디, 람보르기니, 세아트, 벤틀리 등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디자인 경험을 소개한다. 당시 작업한 스케치, 모형 등을 전시해 각각의 디자인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3층의 'HMG 디자인 글로벌 원 팀'에서는 루크 동커볼케 사장이 현대차그룹 디자이너들과 함께 각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소개한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협업 과정과 실제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동료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선보인다.

마지막 4층의 '멈추지 않는 꿈'은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삶과 디자인의 여정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어린 시절 사진과 스케치, 함께 일해 온 동료들의 모습 등 다양한 이미지를 대형 무드보드에 담아내고,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이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전달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과 자동차 및 디자인

애호가는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각자의 꿈과 창의성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기아 CCO(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CDO(Chief Design Officer,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Luc Donckerwolke) 사장은 “꿈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 현실이 된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영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2016년 현대차·제네시스 디자인 총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현대차·기아와 함께하며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 왔다.

세계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월드 카 어워즈(World Car Awards)’에서 ‘올해의 인물’로, 2023년 미국 유력 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World's Greatest Auto Disruptors)’에서 ‘올해의 혁신 디자이너(Disruptor Design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된 바 있다. [끝]

<사진설명> 현대차·기아, 루크 동커볼케 CCO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개최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이자 현대자동차·기아 CCO(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CDO(Chief Design Officer,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Luc Donckerwolke) 사장의 창의적 여정을 조명하는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가 24일(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열린다.

(사진1) 전시를 관람하는 현대자동차·기아 CCO 겸 CDO 루크 동커볼케 사장
(사진2) 전시를 관람하는 현대자동차·기아 CCO 겸 CDO 루크 동커볼케 사장
(사진3) GMR-001 하이퍼카
(사진4) 제네시스 박스 버기 콘셉트

(사진5) ‘멈추지 않는 꿈’ 전시의 디지털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